

당신들은 부활을 믿습니까?

성경말씀: 행26:1-8, 19-29

봄이 돌아오면 겨울에 죽어 있던 것 같은 만물이 다시 소생한다.

봄에 씨를 뿌리면 죽은 것 같았던 씨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란다.

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살짝 볼 수 있게 해 주신다. “당신들은 부활을 믿습니까?”

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

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한평생을 그분께 드린 사람: 사도 바울

복음이란 무엇인가?, 롬1:16-17

딤후2:8-9,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다.

복음의 내용: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는가?

의를 얻는 길: 십자가, 그 의의 결과: 부활(빌3:7-11)

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.

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로 온 창조 세계를 치리하는 자가 된다.

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(엡3).

바울의 부활 증언

바울은 행9장에서 회심한 후 1차, 2차,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붙잡혀 죽게 되었으나 총대장의 지휘로 군사들과 백부장들이 그를 구해냄.

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함: 내용은 행23:6, “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는다.”

행23:11, “바울아,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위해 증언하여야 하리라.”

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므로 총대장이 밤 세 시에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내려 보냄.

닷새 뒤에 더들로를 변호인으로 세우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옴.

이들의 주장: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, 나사렛 분파의 주도자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(행24:5-6)

바울의 답변: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길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.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(행24:14-15).

21절

2년이 흐르면서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옴.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관을 받고자 하느냐? No.

나는 카이사르 앞에서 받는다(행25:9-12). 로마 행이 결정됨

바울의 청문회 증언

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옴, 아그립바 앞에서 청문회를 열게 됨

유대인들의 관례를 잘 아는 왕 앞에서 말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(3).

다소에서 태어나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다. 온 백성이 다 안다(4).

나는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(5, 빌3:5-6,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).

내가 여기서 재판관을 받는 이유: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소망 때문이다(6-7).

“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느냐?”

그리고 회심 고백을 이야기한다.

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자로 삼으셨다.

그 목적(17-18)

그래서 그가 한 일: 먼저 순종하고(19)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함을 보였다(20). 그러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(21절).

그런데 나는 구약의 모세와 대언자들이 한 말만 전한다(22절).

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(23절). 바울의 일생 요약: 부활 선포

몸은 어떻게 되는가?

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과 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.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몸이다.

우리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뱃새가 나는 나사로의 몸 앞에서 우셨다(요11:35).

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.
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이라는 전 인격체의 구원이다.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다. 하나님께서 삼중 존재이시고
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영원토록 어디서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다.
 그러므로 우리가 쓰던 몸이 소멸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.
 그런데 지금의 몸과 동일하지는 않다.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
 다르다. 10년 전의 세포는 다 죽었고 지금은 새로운 세포이다. 그래도 내 몸이다.
 이런 식으로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같으면서도 부활의 몸은 새로운 영역에, 새 하늘과 새 땅에
 적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.

그런데 부활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.

1. 많은 몸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해체되었다.
2. 그 몸을 구성하던 원자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다.
3. 자연 세상에서는 부활과 비슷한 것이 없다. 있어야 설명할 텐데.

부활의 주체: 하나님이다(8절)

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신다.

히11:6

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.

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이시다.

창조 신앙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달려 있다.

“나사로야, 나오라”고 하실 때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새 몸을 나오는 것을 보여 주셨다(요11:43).

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즙으로 바꾸어 주셨다.

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?(렘32:27)

시148:3-5, 시147:4

왜 못 믿느냐?

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(마22:32, 출3:6, 15), 너희가 그렇게 부르면서
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? 그런데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?

1. 욥(욥19:25-27)
2. 다니엘(단12:2-3; 13)
3. 이사야(사26:19)
4. 구약 시대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의 이유: 더 좋은 부활(히11:35)

모든 부활의 첫 열매: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(행1:3),

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서 죽음, 무덤에 장사됨, 봉인을 함, 로마 병사들이 지킴,
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그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. 그분이 일어나셨다.

고전15:5-8, 게바, 열두 제자, 오백여 형제들, 야고보, 모든 사도, 나에게도 보이셨다.

두 종류의 반응

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: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정죄의 부활이 있다.

후자: 베스도의 말, 네가 미쳤다(26:25).

아그립바: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도다(26:28). 부활은 안 믿는다.

사도 바울의 고백: 26:29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.

사도 바울의 복음대로 몸의 부활을 믿는가?

우리는 믿는가?

몸의 부활을 믿는가?

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.

몸의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다.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다.